

일제강점기  
여학교  
교지(校誌)의  
시각적 특성:  
「배화(培花)」를  
중심으로  
Visual  
Characteris-  
tics of School  
Journals from  
Girls' School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Focusing on  
*Paiwha*

조예원  
Cho Yewon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BFA Program, Visual Communication Design,  
Hongik University

- 서론
- 교지 『배화』의 시각성
  - 레이아웃
    - 표지 레이아웃
    - 내지 레이아웃
  - 일러스트레이션
    -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 내지 일러스트레이션
  - 타이포그래피
  - 포토그래피
- 결론

지도교수: 김소연  
Supervisor: Kim Soyoun

## 1. 서론

1929년 최초 발행한 배화여자고등학교의 교지 『배화』의 디자인을 분석하고, 일제강점기라는 특수 상황과 여학교와 학생이라는 특성이 교지의 시각성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교지(校誌)란 학교의 학생들이 학교를 대표하여 주기적으로 편찬하는 잡지를 말한다. 한국의 교지 역사는 근대 교육이 유입되면서 시작되었다.<sup>1)</sup> 작가나 언론인이 아닌 학생이 작성한 글로 구성된 교지가 대중적 주류 매체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간행물의 수가 지금처럼 많지 않고 신문과이나 잡지가 귀하던 시절이기에 교지가 학생들의 삶을 파악하는 요긴한 정보원으로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sup>2)</sup> 또한 교지는 일제강점기 검열이 강화되고 문단의 벽이 점점 높아지면서 자유로운 표현 욕구와 열망을 발산할 수 없던 학생들의 유일한 배출구였다.

식민지 시대 편찬된 여러 교지 중에서도 『배화』를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배화』는 1898년 캠벨 조세핀(Josephine Eaton Peel Campbell) 여사가 설립한 배화학당의 교지이다. 1929년부터 발간 했고, 국민 총력 연맹이 발족됨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통제된 1940년 5월 20일 제13호를 마지막으로 폐간되었다.<sup>3)</sup> 일제강점기 여학교 교지 중 가장 마지막까지, 가장 오래 지속 발간되었다.<sup>4)</sup> 당시 이화여자전문학교에서 발행되는 『이화』가 최고의 신교육을 받는 특별한 여학생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배화』는 그보다 더 평범하고 가난한 환경에 집을 나와 선교사의 교육을 받는 여학생의 모습을 보여준다.<sup>5)</sup>

당시 여성을 바라보는 유교적 관점과 서양 문물에 대한 불신은 선교사가 설립한 학교를 '서학'으로 부르며 배화학당에 딸을 보내는 것을 꺼리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학생은 주로 고아, 가난한 서민층 자녀, 그리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겪은 여성이었다.<sup>6)</sup> 교지를 발간한 교우회의 구성원이 주로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교지는 학생의 주체성이 강했던 매체였다.

정리하자면, 교지 『배화』는 상대적으로 더 평범한 환경에 있는 여학생들에 의해 직접 발간되었다는 점, 민족성을 담은 내용으로 일제의 검열 대상이었다는 점, 드물게 오래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출판 디자인의 측면에서도 그 가치가 크다. 이런 고유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교지 연구는 주로 문학계에서 있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라는 배경에서

- 1) 1885년 선교사 아펜젤러에 의해서 설립된 배재학당에서 최초의 학생회라고 할 수 있는 '협성회'가 조직되었다. 그 후 협성회는 최초의 교지라고 할 수 있는 『협성회보』를 발간하게 되었다. 그러나 무능한 정부의 관료에 대한 비판이 원인이 되어 창간 5개월만에 총 14호를 발간 후 폐간되었다. (오문석, 『식민지 시대 교지(校誌) 연구(1)』, 『상허학보』, 상허학회, 2002, 13쪽)
- 2) 맹문재, 『1930년대 여자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고찰: 『배화』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 3) 일제강점기에 간행된 여학교의 교지 중

- 『일신』과 『이고』는 1호만에 중단되었고, 『백합화』와 『정신』 또한 초기에 폐간된 것으로 예측된다. 그에 비해 『이화』는 7호까지 발간되었고, 특히 『배화』는 마일 전쟁 고비까지 발행되었다. (맹문재, 일제강점기 여학생들의 세계인식 고찰: 여학교 교지에 실린 시작품들을 중심으로)
- 4) 조원재, 『교지 『배화』에 수록된 은촌 조애영의 초기작 연구』, 『어문론총』, 한국문학언어학회, 2023
- 5) 맹문재, 『1930년대 여자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고찰: 『배화』를 중심으로』
- 6) 김세한, 『배화육십년사』, 배화여자중고등학교, 1958

여학생이 만들어낸 교지 『배화』의 시각정  
특징과 그 형성 과정을 파헤쳐 보고자  
한다. 1929년과 1941년 사이 발행된  
『배화』 총 13호의 디자인을 레이아웃,  
일러스트레이션, 타이포그래피, 포토그래피  
측면에서 들여다 보았다.

## Introduction

This study analyzes the design of Paiwha Girls' High School magazine *Paiwha* (first published in 1929). It examines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of how the circumstances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special moment when girls' school with only female students set in this country for the first time affected the visuality of the school magazine.

A school magazine is published periodically by school students on behalf of the school. The history of Korean school magazines began with the introduction of modern education. It is difficult to imagine now that a school magazine composed of articles written by students rather than professional writers or journalists could serve as a popular mainstream media. At a time when the number of publications was not as large as it is now and newspapers and magazines were irregular, school newspapers attracted people's attention as a valuable source of information to understand the student's life. In addition, school newspapers were the only outlet for students who hardly had chances to express their desires and aspirations freely as censorship strengthen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when the walls of the literary world grew higher.

The reasons for selecting *Paiwha* among the various school magazines compil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are as follows. *Paiwha* is the magazine of Paiwha School, founded by Mrs. Josephine Eaton Peel Campbell in 1898. It was published in 1929 and was closed with the 13th issue on May 20, 1940, when all press and publications became under the control of the Federation of National Power. Among the girls' school magazines pub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t was the longest one that was continuously published. *Paiwha* dealt with images of female students who left home in a more ordinary and poor, getting a new education from missionaries, in contrast with *Ewha* published by Ewha Women's College at the time, showed special female students receiving the best new education.

At the time, the Confucian perspective on women and distrust of Western culture created an atmosphere in which people were reluctant to send their daughters to schools like *Paiwha*, calling the schools established by missionaries *Seohak*. Thus, the students were mainly orphans, children from needy families, and women who had experienced unhappy marriages. Since the members of the alumni association that published the school magazine were composed of current students and graduates, the school magazine had independent editing rights.

*Paiwha* is valuable in terms of publication design for multiple reasons. It was published directly



[그림 1] 1호(1929)



[그림 2] 2호(1930)



[그림 3] 3호(1931)

by female students in a relatively ordinary environment, it was subject to Japanese censorship due to its ethnic content, and it lasted unusually long compared to other school magazines. Despite this unique value, research in academic journals has mainly been conducted in the literary world. In this study, I aim to go through the visual characteristics and formation process of *Paiwha*, a school magazine created by female students in the background of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 looked into the design of a total of 13 issues of *Paiwha* published between 1929 and 1941 regarding layout, illustration, typography, and photography.

## 2. 교지 『배화』의 시각성

### 2.1. 레이아웃

#### 2.1.1. 표지 레이아웃

제목, 호수, 일러스트레이션, 발간 주체 순서의 배치는 1호부터 13호까지 일정하게 유지된다. 1호의 경우 표지 전체 화면에 장식적 문양의 테를 둘렀다. 또한 '배화'라는 교지의 제목을 가장 위에 메인 타이틀로 사용하였으며, 바로 밑에 호수를 한문 혹은 숫자로 표시했다. 즉, 제목, 호수, 일러스트레이션, 발간 주체 순서의 배치를 이룬다.

또한 그래픽을 활용한 화려한 표지 테두리가 특징이다. 표지에 테두리를 두르는 것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디자인이다.<sup>7)</sup> 그 예시로서, 『코리아 리포지토리』(1892)의 경우 미국인 올링거 목사 부부가 발행한 월간 영어잡지<sup>8)</sup>로

7) 김기태, 『한국 근대잡지 창간호의 표지디자인 연구』, 『역사와 융합』, 바른역사학술원, 2021

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코리아리포지토리,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8632>



[그림 4] 4호(1932)



[그림 5] 5호(1933)

전체 화면에 테를 두르며 사각귀퉁이에 아르누보 풍의 식물 장식이 있다.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1897)는 독립협회가 창간한 잡지로 전통적인 방식으로 표지에 제목만 쓰던 관습을 계승한 점이 드러나며, 장식적 문양이 첨가되는 디자인으로 점차 변화한다.<sup>9)</sup>

2호의 경우는 가운데 정렬이나 가로선을 맞추지 않은 자유로운 레이아웃을 보인다. 독특한 손글씨를 통한 제목 글자체를 실험적으로 배치하여 틀에 갇히지 않은 표현을 보여준다.

6호-13호의 경우 동일한 표지를 사용했다. 발간 초기는 당시 디자인 유행과 자주 사용된 잡지 레이아웃을 반영하고자 한 점과 개성 있는 레이아웃이 잘 드러났으나, 일제의 탄압과 시대적 현실 상황이 영향을 끼쳐 디자인의 비중이 감소하고 몰개성화가 진행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 2.1.2. 내지 레이아웃

교지의 내지 본문은 세로쓰기로 진행되었으며, 1단으로 나눈 조판과 2단으로 나눈 배치가 혼합되어 등장한다. 후반 교지에는 일본어로 쓰인 글들도 등장하는데, 이도 마찬가지로 2단으로 배치되었다.<sup>10)</sup> 초기에는 한글과 한문을 병행해 사용하였으나 점차 한글 사용의 비중이 줄어 1930년대 후반에는 주로 한자와 일본어만 사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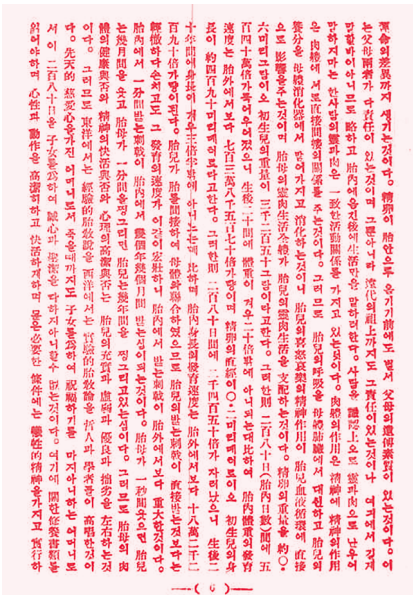


[그림 6] 『코리아 리포지토리』(1892)  
(출처: 위키피디아)



[그림 7] 『대조선 독립협회 회보』(1897)  
(출처: 근현대디자인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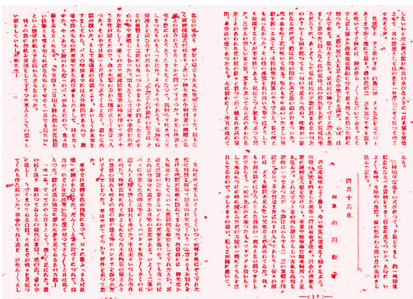
- 9) 조현신, 『한국의 근대초기 잡지 표지디자인의 특성』, 『Archives of Design Research』, Vol.27, (한국디자인학회, 2014)
- 10) 창간호는 조선어 작품이 72점, 일어문으로 쓰인 작품이 18점으로 조선어가 높은 비중으로 발간되었으나, 후반에는 일본어 문장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조원학, 『교지 『배화』에 수록된 은촌 조애영의 초기작 연구』, 『어문론총』, 한국문학언어학회, 2023)



[그림 8] 초가: 한글과 한문 / 1단 1호(1929), p.6



[그림 9] 중가: 일본어 텍스트 비중 증가 / 2단 9호(1937), p.4-5



[그림 10] 말기: 대부분 일본어로 작성 / 2단 13호(1941), pp.12-13



[그림 11] 5호(1933)



[그림 12] 6호(1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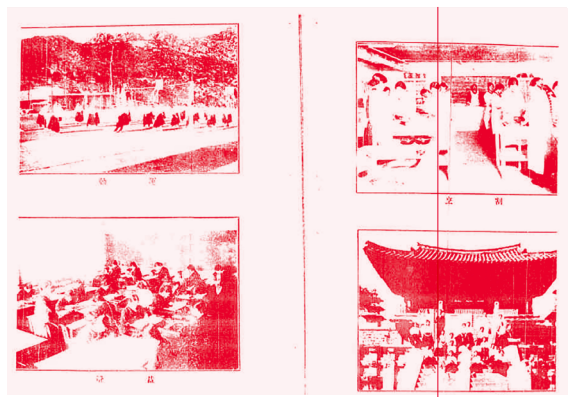


[그림 13] 10호(1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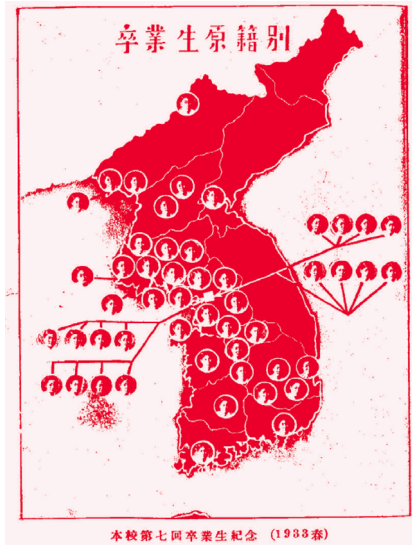




[그림 14] 1호(1929), p.5



[그림 15] 1호(1929), pp.7-8



[그림 16] 5호(1933)



[그림 17] 6호(1934)

## 2.2. 일러스트레이션

### 2.2.1. 표지 일러스트레이션

1-5호에서만 표지 일러스트레이션이 삽입되었으며, 6호 이후 표지 일러스트레이션이 삽입되지 않았다. 1호의 경우 꽃의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그래픽화하여 표현한 것으로 예측되며, 2호의 경우 꽃나무를 표현했다. 3호의 경우 연꽃에 관한 글을 수록해, 표지 일러스트레이션의 소재는 교지의 내용에서 착안했다. 수채화를 통한 부드러운 텍스처 표현에도 빨간 꽃잎과 초록 연잎의 대비를 통해 일러스트레이션이 강조된다. 5호는 배꽃을 표현했다. 6호-13호의 경우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여 표지 일러스트레이션이 삽입되지 않았다. 즉, 표지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 꽃을 묘사하는 이미지가 사용되었으며 '배화', 즉 '꽃을 기른다'는 의미가 반영되어 학교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효과를 보인다.

### 2.2.2. 내지 일러스트레이션

내지 일러스트레이션이 경우 지식이나 내용의 명확한 전달을 위한 묘사 일러스트레이션과 문학적 혹은 장식적인 목적의 창작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내용 묘사를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는 여학생들에게 기능적인 교육을 시행했던 일제 황국신민화 교육정책으로 인한 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으로 인해 여학생들의 교육은 교과목 자체를 연구한 것이 아닌, 일생동안 유용하게 사용할 기술들을 습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sup>11)</sup>

11) 맹문재, 「1930년대 여자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고찰 - 「배화」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8

## 2.3. 타이포그래피

창간 초기와 중 말기로 분류하여, 창간 초기의 1, 3, 4호의 경우 한문, 한글을 모두 산세리프와 같이 끝이 각진 형태로 통일감을 부여했으며, 한글의 경우 초성, 중성, 종성을 마치 나열해 마치 영어와 같은 언어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하는 방식으로 표현했다. 2호의 경우 자유롭고 거칠고 두꺼운 표현으로 직접 그린 듯한 두꺼운 서체가 외곽을 띤 배경과 잘 어우러진다. 중 말기의 경우 5호 이후 한문 서체로 고정되었으며 5호의 경우 직선 위주의 두꺼운 서예가 특징이며, 6호부터 13호까지는 전통적인 한문 서예 기법이 드러난다.

독립운동가이자 배화학당 교사였던 한서 남궁역 선생은 최초로 한글 서예를 개발해 공체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기도 했다. 교지의 타이포그래피와 한서 남궁역 선생의 공체의 직접적인 연관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한서 남궁역 선생의 한글에 대한 의지가 학생들에게 교지에 한글 서체로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 또한 서체, 손글씨, 서예가 모두 사용되어 다양한 시각성을 보여준다.

## 2.4. 포토그래피

발간 초반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던 것과는 달리, 후반기에 갈수록 포토그래피의 비중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포토그래피가 교지에서는 예술적 매체로 활용되지는 않았으며, 학생들의 단체사진과 교사의 사진을 기록하기 위함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학생들의 고향을 기록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도 일러스트레이션 위에 사진을 삽입했다. 이는 여러 매체의 동시적 사용을 통한 인포그래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 3. 결론

초기 교지의 경우 당시 디자인 유행과 자주



사용된 잡지 레이아웃을 반영하고자 한 점, 개성 있는 디자인이 잘 드러났으나, 일제의 탄압과 시대적 현실 상황이 영향을 끼쳐 디자인의 비중이 감소하고 몰개성화가 진행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초기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독립운동가이자 교사였던 한서 남궁억 선생의 정신이 계승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서체, 손글씨, 서예가 모두 사용되어 다양한 시각성을 보여준다. 표지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 꽃을 묘사하는 이미지가 사용되었으며 ‘배화’, 즉 ‘꽃을 기른다’는 의미가 반영되어 학교의 정체성을 나타낸다. 내지 일러스트레이션의 경우 내용 묘사를 위한 일러스트레이션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여학생들에게 기능적인 교육을 시행했던 일제 황국신민화 교육정책으로 인한 한계로 바라볼 수 있다. 교지 내에 불가피하게 높아지는 일어의 비중에 따라 한글과 일어 모두 기재되거나 일어만을 기재하는 쪽으로 점차 변화했으며, 이에 따라 내지 레이아웃 또한 유동적으로 변화됨을 확인할 수 있다. 교지의 정보제공적 기능, 아카이빙의 기능에 따라서 교지 내의 포토그래피는 당시 학생들의 사진이나 당시 학생들의 생활 양상을 기록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사진이 예술적 매체로서 활용되지는 않았다.

교지의 시각성은 레이아웃,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레이션, 색채, 포토그래피 등을 통해 여학생과 배화여학교에 대한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전달하고 그들의 인식을 반영하는 시대적 산물이자 매체이다. 여학생들의 교육이 남성과 평등하지 않았고,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던 당시, 배화 교우회 구성원들은 일제의 억압과 출판 검열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주체적으로 활동했다. 이러한 주체성과 정체성은 그들의 교지 디자인에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연물을 형상화한 표지

일러스트레이션을 활용하여 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했으며, 조선시대의 깊은 전통을 이어받은 서예와 독립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통해 타이포그래피로서의 발전을 시사했다. 동시에 출판물 검열이 심해질수록 디자인에서도 몰개성화가 일어날 수 있음이 드러난다. 46

## 참고문헌

- 김세한, (1958), 『배화육십년사』, 배화여자중고등학교
- 조원학, (2023), 「교지 『배화』에 수록된 은촌 조애영의 초기작 연구」, 『어문론총』, 한국문학언어학회
- 맹문재, (2008), 「1930년대 여자고등학생들의 학교생활 고찰: 「배화」를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박지영, (2006), 「식민지 시대 교지 『이화』 연구: 지식인 여성의 자기 표상과 지식 체계의 수용 양상」,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 오문석, (2002), 「식민지 시대 교지(校誌) 연구(1)」, 『상허학보』, 상허학회
- 김기태, (2021), 「한국 근대잡지 창간호의 표지디자인 연구」, 『역사와 융합』, 바른역사학술원
- 조현신, (2014), 「한국의 근대초기 잡지 표지디자인의 특성」, 『Archives of Design Research』, Vol.27, 한국디자인학회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코리안 리포지토리(Korean Repository),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8632>